

고득점시리즈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라
100점 만점이다!

© followright.com

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를 우선 고민해서 풀어 보세요. 시간 제약 없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생각을 해 보세요.

2009학년도 수능 — ● 40번 문제와 변형 문제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본 사람은 한 번쯤 '어떻게 작은 파일 안에 수십만 장이 넘는 화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동영상 압축은 막대한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김으로써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데이터의 양을 수백 분의 일까지 줄이는 기술이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 등을 이용한다.

동영상은 연속적인 화면의 모음인데, 화면 간 중복은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것을 말한다.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동영상을 생각해 보자. 현재 화면을 이전 화면과 비교하면 아나운서가 움직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화면을 모두 저장하지 않고 변화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만 저장하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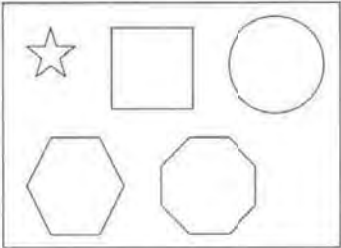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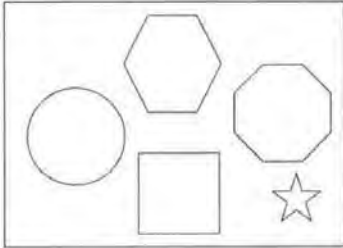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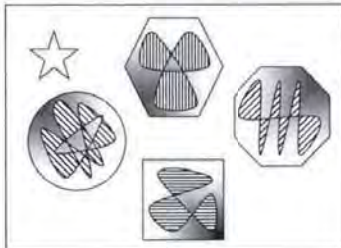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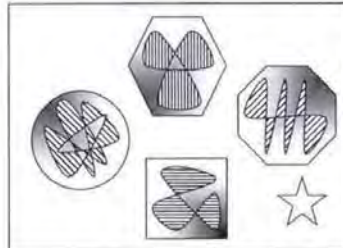
하나의 화면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화소라 한다. 각각의 화소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가진다.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원래의 화소 값들을 여러 개의 성분들로 형태를 변환한 다음,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들만을 저장한다. 이때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변환된 성분들을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질의 차이가 별로 없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화면이 단순할수록 또 규칙적일수록 화소 간 중복이 많아서, 제거 가능한 성분들이 많아진다. 다만 이들 성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화면이 흐려지거나 얼룩이 지는 등 동영상의 화질이 나빠진다. 이러한 과정은, 우유에서 수분을 없애 전지분유를 만들면 부피는 크게 줄어들지만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되는 것과 비슷하다.

고득점시리즈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이다! -

압축된 동영상에 저장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는 위의 과정을 거쳐 이미 많은 부분이 제거된 상태이다. 통계적 중복은 이들 데이터에서 몇몇 특정한 값이 나오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말한다. 이때 자주 나오는 값일수록 더 짧은 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하면, 데이터 값을 그대로 저장할 때보다 저장하는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 ㉡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전 화면	현재 화면
㉠		
㉡		

※ ㉠, ㉡는 흑백 화면이며 화소의 개수가 모두 동일함.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 사이의 화면 간 중복 정도	현재 화면 내의 화소 간 중복 정도
① ㉠가 더 높다	㉠가 더 높다
② ㉠가 더 높다	㉡가 더 높다
③ ㉡가 더 높다	㉠가 더 높다
④ ㉡가 더 높다	㉡가 더 높다
⑤ ㉠와 ㉡가 같다	㉠와 ㉡가 같다

이번 문제는 2009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딱 보는 순간부터 어렵게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입시 학원들의 통계 조사에서도 2009학년도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다섯 개 뽑아보라고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하위 정답률 4위) 그 정도의 문제라면 대개의 학생들은 감도 잡지 못하고 답을 찍는 경우가 많거나 어느 정도 생각의 과정을 거쳤더라도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파악했다면 굳이 헛갈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학생들은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점을 토대로 사고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해서 정답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 100%로 연습했다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전혀 긴장할 필요 없이 연습한대로만 풀어 가면 쉽게 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찾고 종로구를 찾고……. 어렵지 않죠?

이번 문제는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보다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종로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쉬운 문제를 통해서 돌아가는 연습을 해 봅시다. 우선 아래의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세요.

낚잡이 문제

1 위 글을 바탕으로 '화소'의 의미를 파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텔레비전이나 사진 전송에서, 화면을 전기적으로 분해한 최소의 단위 면적.
- ②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수많은 점.
- ③ 비디오카메라 등에서 빛에 의해 각기 독립적으로 반응하면서 화면을 구성하는 2차원적인 화면의 최소 단위.

2 위 글을 바탕으로 '화면 간 중복'의 의미를 파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것을 말한다.
- ② 중복된 화면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말한다.
- ③ 현재 화면에서 비슷하게 중복되는 모양이 많아서 단순한 화면 구성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3 위 글을 바탕으로 '화면 간 중복 정도가 높다'는 말의 의미를 추론하시오.(주관식)

4 위 글을 바탕으로 '화소 간 중복'의 의미를 파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의 화소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말한다.
- ②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규칙적 변화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 ③ 한 화면을 구성하는 화소들 중 제각각 양 옆의 화소와 중복된 화소 값을 가지는 경우.

5 위 글을 바탕으로 '화소 간 중복 정도가 높다'는 말의 의미를 추론하시오.(주관식)

6 위 글을 바탕으로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말의 의미를 추론하시오.(주관식)

[2집이 문제 정답과 해설]

1 ②

해설 : 정답이 아닌 나머지 선택지들도 실생활에서는 '화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이 선택지들은 사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제시에서 '위 글을 바탕으로 ~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였으니 그 취지에 가장 맞는 것은 위 글의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넣은 ②가 되겠습니다. 단락3-1, '하나의 화면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화소라 한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①

해설 : 1번 문제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정도가 높은 것

해설 : 2번 문제를 통해서 '화면 간 중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였다면 당연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②

해설 : 1번 문제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정도가 높은 것

해설 : 3번 문제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 화소 값이란 각각의 화소가 가지는 밝기와 색상 값이므로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밝기와 색상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해설 : 이 문제가 의도하는 중요한 내용은,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문제 제시의 취지에 맞게 '위 글을 바탕으로' 추론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대개의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화소 값'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화소 값'이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글에서 제시해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락3-2**, '각각의 화소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가진다.'를 필히 참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수능 문제는 틀렸는데, 위의 길잡이 문제들은 어느 정도 맞았다면 아직 수능을 위한 추론적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개의 교재와 강의에서 '추론적 사고'의 갈래에 넣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추론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앞의 길잡이 문제들의 답을 추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다뤘던 길잡이 문제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을 단순히 지문과의 비교에 의한 사실적 판단(경박하게 말하면 퍼즐 맞추기)으로 모두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화소 값 중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길잡이 문제와 같은 '글자와 글자의 일치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글자와 영상의 일치 관계'를 묻게 되면 그 중간의 과정이 되는 길잡이 문제들을 학생 스스로 밟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추론해야 한다고 하여서 추론적 사고의 문제로 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러한 포맷을 갖춘 문제는 더 노골적으로 지문에서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풀었던 길잡이 문제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잡아낼 수 있는 이른바 수능 언어영역의 객관적 추론 능력이고, 그 추론 능력이라는 것은 좀 더 까다로운 퍼즐 맞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득점시리즈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이다! -

① 우선 문제 제시를 통해서 답의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문제 제시를 보면, 이 역시 위 글을 바탕으로 ㉠과 ㉡를 비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역시도 문제 제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이미 확정적으로 제시된 것들(문제 제시, <보기>, 선택지의 공통된 항목 등)은 모두 넓은 범위에서 '문제 제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답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전 화면, 현재 화면, 흑백' 과 같은 단어는 다들 고민 없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제시되는 '화소' 라는 단어는 분명 여러분이 적어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에서 다시 한 번 그 개념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학생들에게 미리 알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 → 문제와 지문을 통해서 추론해야 하는 것' 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 연습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화소가 무엇일까? 나는 잘 모르니 글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길잡이 문제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넓은 의미의 문제 제시' 에서 주어지는 단어나 문장 중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열해 본다면, '화소',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화면 간 중복 정도가 높다/낮다.', '화소 간 중복 정도가 높다/낮다.' 정도가 우리가 지문을 통해 '추론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추론' 이라는 말은 앞의 문제에서 폐기하자고 했으므로 이제 편하게 지문을 통해 '찾아봐야 할' 내용이라고 말하기로 합시다.

② 문제 제시를 통해 발견한 정답의 경로를 지문을 통해 따라가기

지문을 확인하면 **단락3-1**에서 화소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 간 중복' 은 **단락2-1**에서, '화소 간 중복' 은 **단락3-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에서 등장하는 다소 애매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습을 할 때는 가급적 이와 같이 학생들 모두가 선형적으로(미리) 알고 있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

문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면 간 중복 정도가 높다'는 것은 지문에서 주어진 문장으로부터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정도가 큰 것' 이라고 객관적으로 끌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없어도 문제에 적용까지는 가능합니다. <보기>의 ㉠이 ㉡보다는 이전 화면과 현재 화면이 좀 더 비슷합니다. ㉢에서는 도형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화면 간 중복 정도'에 대해서는 지문에서는 예시를 통해 좀 더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을 볼 때,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정도가 큰 것' 만으로 문제 풀이가 어렵다면 그 내용 아래에 주어진 예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을 비교하면 아나운서가 움직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에서 좀 더 실제적으로 화면 간 중복이 무엇인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용은 안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소 간 중복'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하는데, 글에서는 이것을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내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설명을 읽고 문제에 바로 적용하기 이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제시된 설명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개념, 즉 '화소 값의 차이' 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소 값의 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아까 찾았던 화소의 개념,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수많은 점들'이라는 것만으로는 '화소 값의 차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단락3-2를 보면, '각각의 화소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소 값의 차이'라는 것은 '밝기와 색상 차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화소 간 중복 정도가 높다'는 것은 간단하게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정도가 되겠고, 한 번 더 바꿔 말하면,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각각의 화소의 밝기와 색상 차이가 별로 없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 ㉠에 비해서 밝기와 색상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화소들은 모두 하얀 경우가 많죠. 흰색 옆에 흰색이 놓인다는

고득점시리즈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이다! -

뜻입니다.('흰색-흰색-흰색-검은색-흰색'과 같이) 그러나 ㉡는 어두운 단계(밝기)가 아주 미세하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검은색-짙은 회색-밝은 회색-흰색) 그러므로 이제 이 단계에서 답을 확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흰색-흰색은 차이가 없지만, 검은색-짙은 회색은 흰색-흰색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③ 문제 풀이 후, 숨어 있는 단서 찾기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들은 이것을 약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각각의 화소의 밝기와 색상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 '흰색-검은색-흰색'보다 '검은색-짙은 회색-밝은 회색'의 경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답과는 반대로 추론하게 됩니다. 물론 엄밀하게 생각할 때는 ㉡에서 흰색-흰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다시 바꿀 수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그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도의 사고 과정에서 답을 찍기에는 약간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단락3-6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단순할수록 또 규칙적일수록 화소 간 중복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나운서의 예를 살펴봤듯이 이 부분도 아래의 구체적 부분을 참고하여 문제 풀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와 ㉢ 중에 화면이 단순하고 규칙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우의 자연적인 해석은 ㉡가 좀 더 단순하고 규칙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보다 좀 더 명확하게 정답을 ③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엄밀하게는 '많다'는 것을 토대로 '높다'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다'는 것은 한 화면에서의 화소 중복 정도의 절대적 수치가 되겠고, '높다'는 것은 ㉡와 ㉢ 사이에서의 상대적 우열 관계를 나타내는 것, 즉 '㉡와 ㉢ 중에서 어느 것이 화소 간 중복이 더 많은지'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여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앞서 생각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득점시리즈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이다! -

일반 기출문제집 등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 A : 단어 추론만을 가지고 답을 골랐는데, 단어 추론 과정에서 화소 값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론하지 않고 있고 뛰어넘고 있다. **단락3-6**을 통해 애매한 부분을 확정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평가원의 공식 답변 등에만 의존하여 해설을 구성하였지만 학생들의 자연적 사고 수준은 그렇지 못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 B : 단어 추론의 과정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곧장 **단락3-6**을 통해서 답을 확정했는데, **단락3-6**은 단어 추론에 보충적으로 쓰일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이 처음부터 답의 근거로 쓰이게 된다면 다른 문제를 푸는 연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해설이다. 단어 추론이 수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고 또한 모든 종류의 고급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설은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 C : 해설자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쓴 해설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설의 핵심이 되는 많은 부분이 빠져 있거나 생략되어 있다.
- D : 모든 부분을 뛰어넘어서 해설풀이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조차 측정하기 쉽지 않다.

재미있는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아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특히 언어영역에서 '출제자의 사고'라는 것을 많은 학생이 중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사고는 어떤 것일지 살펴볼 수 있겠죠?

고득점시리즈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이다! -

〈평가원의 문제 해석에 대한 밑줄 및 번호 부여,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 이의 제기는 ‘<보기>에서 ㉡보다 ㉢가 화소 간 중복이 더 높다’는 주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 지문에서는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 경우는 5개 도형의 외곽선을 구성하는 화소들(검은 선)과 그 밖의 화소들(흰 바탕) 사이에서 화소 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 외곽선과 그것에 인접한 화소들을 제외하고는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화소 간 중복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의 경우는 5개 도형의 외곽선 이외에, 별을 제외한 4개 도형의 내부에서도 검은 점부터 흰 점까지 화소 값이 다른 화소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끼리도 화소 값의 차이가 큼니다. 또한 ㉢의 경우는 별을 제외한 4개 도형의 내부에 있는 화소들이 가지고 있는 화소 값의 변화도 상당히 불규칙적이므로 화소 간 중복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의 경우 이전 화면과 현재 화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규칙적이라고 해석한 이의 제기가 있으나, ㉢ 지문에서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라 하였고 문항에서도 ‘현재 화면 내의 화소 간 중복 정도’를 물었으므로 이전 화면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평가원 문제 해석에 대한 재해석 및 학생 입장에서의 수용 여부〉

㉠, ㉢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은 ‘화소 간 중복’, ‘화소 간 중복’을 지문에서 제시하는 대로 추론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의 단어 추론을 ‘지문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풀이 과정이 가장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풀이라는 것을 평가원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의 해석을 보면, ‘모르는 단어 → 지문에서 확인 → 문제의 적용’이라는 간단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다루었던 2007학년도 문제, 그리고 이번 2009학년도 문제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해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출제자의 사고’라고 하여 시중에서 떠드는 복잡한 이론이나 독해 기술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

고득점시리즈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이다! -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원의 해석에서 보듯이 출제자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기초적인 문제 접근법으로 해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초적인 것을 100%로 연습하는 것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해석 중, ㉠과 ㉡은 학생 입장에서 실제 시험 시간에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던 문제 풀이처럼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 즉 '화소 값 차이' 라는 것의 의미 추론, '단락3-6'에서의 보조 근거 추론 등으로 그 해석을 좀 더 명확하고 학생 지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일반 학생들의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의 제기까지 하는 학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100%의 문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검토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고난도의 문제를 통해서 과연 100%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고난도 문제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 해석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에서도 요구하는 능력은 시중의 언어 교재나 강의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복잡하거나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step-1의 공부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100%로 연습하는 것은, 거창하게도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임을 직접 출제자의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이라도 그것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확인한 것처럼 일반 기출문제집이나 강의에서는 결코 100%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또한 때로는 문제의 해결 방향조차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연습을 위해서 100%의 사고를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step-1의 단계에서 100%의 사고를 하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엄선된 문제에 대한 적용을 통해 이러한 풀이 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아보시다.